

The Story

- 물동량 리포트
2015 양산ICD 물동량
- 이 슈
1/4분기 ICD 이슈
- News +
1/4분기 항만물류동향
- 전문가 칼럼
이제는 미래를 위한 부산항의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
- 이야기 나눔이
3시간
_ 전병훈 (주)한진 해운중합동체센터
현대상선 선택 Plus 교육을 다녀와서
_ 최재훈 대리 현대상선(주) 물류사업팀

The Magazine

- 불후의 명곡
버스커 버스커 <벚꽃엔딩>
- 소소한 라이벌
허니버터칩 VS 수미칩 허니머스터드
- 스포츠는 살아있다
오감만족 야구 즐기기
- On the road
부산 서동 미로시장
- 그 카페
김해 카페 일루소
- 여행을 여행하다
울산 대왕암

형형색색의 꽃들로
눈이 즐거운 계절,
오늘도 내일도 봄꽃처럼
화사한 하루를 보내세요!

봄
봄
봄

봄꽃을 보니 그리운 사람을 보니

김시천

봄꽃을 보니
그리운 사람 더욱 그립습니다.

이 봄엔 나도 빗장을 풀고
봄꽃처럼 그리운 가슴 맑게 씻어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고 싶습니다.
조금은 수줍은 듯 어색한 미소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피었다 지고 싶습니다.



CONTENTS

Apr 2015 Vol. 41

04

The Story

- 04 **물동량 리포트** / 2015년 양산ICD 물동량
- 06 **이슈** / 1/4분기 ICD 이슈
- 08 **News +** / 1/4분기 항만물류동향
- 14 **전문가 칼럼** / 이제는 미래를 위한 부산항의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
- 20 **이야기 나눔이** / 3시간 _ 전병훈 (주)한진 해운종합통제센터
현대상선 선택Plus 교육을 다녀와서 _ 최재훈 대리 현대상선(주) 물류사업팀

24

The Magazine

- 24 **불후의 명곡** / 버스커 버스커 <벚꽃엔딩>
- 26 **소소한 라이벌** / 허니버터칩 VS 수미칩 허니머스터드
- 28 **스포츠는 살아있다** / 오감만족 야구 즐기기
- 30 **On the road** / 부산 서동 미로시장
- 34 **그 카페** / 김해 카페 일루소
- 36 **여행을 여행하다** / 울산 대왕암

2015년 양산ICD 물동량



년도별 물동량 처리실적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CY(TEU)	1,330,885	1,123,385	1,065,380	1,025,146	646,564	395,075	293,418	195,496	157,490	138,962	
CFS(R/T)	1,330,680	1,145,602	1,039,705	1,209,461	1,007,769	1,185,602	868,759	670,178	562,765	416,211	
일반화물(TON)	-	-	8,439	204,101	366,438	522,791	639,453	820,225	923,647	1,272,300	
전년 대비 증감율 (%)	CY	+10.2	-15.6	-5.2	-3.8	-36.9	-38.9	-25.7	-33.4	-19.4	-11.8
	CFS	-6.1	-14.0	-9.2	+16.3	-16.7	+17.6	-26.7	-22.9	-16.0	-26.0
	일반	-	-	-	-	+79.5	+42.7	+22.3	+28.3	+12.6	+37.7

2015년도 컨테이너 및 화물처리 실적

◆ 컨테이너 반출입 현황

[단위:TEU]

구 분	반 입			반 출			계			
	F	E	계	F	E	계	F	E	계	
1월	1,911	3,756	5,667	900	4,333	5,233	2,811	8,089	10,900	
2월	1,959	2,754	4,713	825	4,309	5,134	2,784	7,063	9,847	
3월	1,840	3,250	5,090	992	4,945	5,937	2,832	8,195	11,027	
계	물동량	5,710	9,760	15,470	2,717	13,587	16,304	8,427	23,347	31,774
	점유비(%)	36.9	63.1	100	16.7	83.3	100	26.5	73.5	100

◆ CFS 화물처리 현황

구 분	화물량(R/T)			TEU			
	수 출	수 입	계	수 출	수 입	계	
1월	7,145	24,123	31,268	313	1,176	1,489	
2월	6,279	25,214	31,493	267	1,297	1,564	
3월	8,369	24,964	33,333	370	1,378	1,748	
계	물동량	21,793	74,301	96,094	950	3,851	4,801
	점유비(%)	22.7	77.3	100	19.8	80.2	100

※ 화물량(R/T)은 소수점으로 집계되어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 화물처리 현황

[단위:TON]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14동기대비 증감율(%)
	년 간	1월 ~ 3월	1월 ~ 3월	
총 계	1,272,300	248,660	278,986	12.2
택 배	654,665	146,520	148,553	1.4
일반잡화	617,635	102,140	130,433	27.7

※ 일반화물중 택배비율 약52%, 그 외 약48%

◆ 중고자동차 수출 물동량 현황

[단위:대]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14동기대비 증감율(%)
	년 간	1월 ~ 3월	1월 ~ 3월	
처리량	6,704	1,958	1,791	-8.5

1/4분기 ICD 이슈

경남도청 방문

2015년 1월 28일 경남도청 김상욱 해양수산국장 일행이 당사를 방문하였다. 이날 방문에서는 양산ICD 운영현황 파악 및 기지내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양산ICD 현안사항관련 실무자 회의(2차) 개최



2015년 3월 6일 당사 회의실에서 양산ICD 현안사항 관련 전 주주사 실무자 회의(2차)가 개최되었다. 회의 내용으로는 실시협약을 비롯한 기지 내 건폐율 확대에 관한 사항등이 논의 되었다.



해빙기 안전관리교육 실시

2015년 2월 24일 양산ICD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해빙기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였다. 해빙기를 맞이 하여 기온 변화에 따른 지반침하 및 화재예방 등 안전 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건축물 점검 및 기지내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였다.

양산ICD 해빙기 안전관리교육

2015. 2. 24

(주)양산아이시디



식품의약품안전처 방문

2015년 3월 16일 식품의약품 안전처 직원 25명이 당사를 방문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현장 교육의 일환으로 양산ICD의 주요기능 파악 및 홍보 동영상 시청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2015년 제 1회 이사회 및 제2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15년 3월 26일 당사 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 1회 이사회 및 제 2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4회계년도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를 시작으로 2014 회계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 결손금 처리계산서 승인, 임원보수 한도액 결정의 건, 2015년 예산편성의 건, 경상비 부담금 납부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실시협약의 건 등이 의결 처리 되었다.



양산ICD 전대차 계약 변경

2015년 3월 31일 당사 부지 일부(8필지 1,056㎡)가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 간 확장 공사로 인해 한국도로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부산항만공사에 아래와 같이 전대차계약 변경 요청을 하였다.



종 전	변 경
13필지 720,241㎡	5필지 719,185㎡

1

북항 자성대
신선대부두 운영사 통합 논의
비용절감·신항 운영권 확보 위해

1/4 분기
항만물류동향



부산항 북항 자성대부두(5만t급 4개 선석) 운영사 허치슨과 신선대부두(5만t급 5개 선석) 운영사 CJ대한통운이 통합을 논의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양측은 신항으로의 컨테이너 물동량 쏠림현상에 따른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통합부두 운영방식, 통합비용 부담, 인력 구조조정 등 세부 조건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허치슨부두와 신선대부두는 1월 13일 “지난해부터 협상이 진행 중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양측이 통합에 나선 것은 비용 절감과 함께 신항에 새로 건설 중인 부두 운영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해양수산부는 운영사를 통합하면 선석 임대료 감면(15%)과 유예(15%)를 해주고, 통합에 들어가는 시설비를 지원해준다. 가장 큰 인센티브는 신항 부두운영사를 선정할 때 우선권을 준다는 점이다.

북항은 신항에 물량을 빼긴 데다 부두운영사 간 하역로 출혈경쟁으로 경영위기가 심해지면서 해수부가 부두운영사 통합을 추진해 2013년 12월 감만부두 운영사 3개 사가 한 회사로 합쳤고, 2014년 1월 신선대부두와 우암부두가 운영사를 통합했다.

자성대와 신선대부두가 통합되면 북항에는 자성대·신선대 통합운영사와 감만부두 통합운영사, 신감만 등 3개 운영사가 남게 된다.

국제신문 1월 13일자

2

부산항 올해 ‘환적화물 1000만TEU 시대’ 연다
부가가치 1조2000억 달성 목표

부산항이 올해 ‘환적 컨테이너 1000만 개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환적 1000만6000개를 포함해 모두 1950만 개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부산항 개항 이래 처음으로 환적 컨테이너 1000만 개를 처리하면 1조20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전망이다.

출발이 힘찼다. 세계 4대 해운동맹인 ‘오션 쓰리(Ocean3)’ 얼라이언스 소속 ‘콜럼버스 비발디호(M/V CMA-CGM VIVALDI)’가 부산항 신항 BNCT 터미널에 1월 21일 입항하면서 부산항의 환적화물 증가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 배는 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하며 포트켈랑, 홍콩, 옌텐, 상하이, 닝보, 부산, 시애틀, 밴쿠버에 기항한다. 오션 쓰리는 지난해 9월 세계 3위 해운선사인 프랑스 CMA-CGM과 중국 해운공사(CSCL),

중동 UASC가 결성했으며 세계시장의 13.9%를 점유하고 있다. BNCT 존 엘리엇 사장과 CMA-CGM 이원우 부사장은 “콜럼버스 비발디호의 입항은 부산항 CMA-CGM은 물론 BNCT 환적화물 증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1월 아시아 최초로 수직배열자동화시설을 갖추고 개장한 BNCT는 해운동맹 간 경쟁 속에서 환적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2014년 10월 공 컨테이너 1만6000개를 한 번에 적재할 수 있는 공 컨테이너 장치장을 완공한 데 이어 다음 달 안벽크레인(STS 크레인) 3기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렇게 되면 1만8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처리가 가능해져 BNCT의 연간 처리능력은 180만TEU에서 250만TEU로 늘어난다.



부산항만공사 임기택 사장은 “환적화물은 자국 화물을 위해 건설한 컨테이너부두에서 다른 나라 화물을 덤으로 처리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환적화물 1000만 개 시대를 맞아 항만산업은 물론 관련 산업을 동반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 1월 25일자

3

물동량 과부하 부산항 신항 “파이를 키워라”

2020년 부산항 북항-신항 물동량 수급전망

(단위:만TEU, 자료:해양수산부, KMI)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해양수산부 전망	1,917	2,013	2,113	2,218	2,329	2,445
북항	620	630	640	650	660	670
신항	1,297	1,383	1,473	1,568	1,669	1,775
KMI 전망	1,910	1,998	2,091	2,189	2,290	2,396

“부산항 신항 개발,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항 개발로 늘어나는 컨테이너 부두 선석량이 급증하는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2014년 품목별 항만물동량 예측보고서’를 보면,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올해 1천910만TEU, 2020년에는 2천396만TEU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의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1월 발표된 ‘기능 재정립을 기반으로 한 부산항 발전 종합대책’을 통해 해양수산부는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올해 1천917만TEU, 2020년 2천445만TEU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런데 늘어나는 컨테이너 물동량의 대부분은 부산항 신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신항의 경우 올해 1천297만TEU, 2020년 1천775만TEU의 컨테이너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항은 올해 620만TEU, 2020년 670만TEU에 그친다는 것이다. 신항으로의 물동량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셈이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나는 컨테이너 물동량을 부산항의 컨테이너 부두들이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느냐다. 정부 일각에서는 운영사 통합 등 '북항기능 재정립'을 통해 신항과 북항의 수급균형을 이루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부산항의 늘어나는 물동량은 결국 신항이 감당해야 할 형편이다.



항만물류 전문가들에 따르면, 신항의 현행 컨테이너 부두 적정 하역능력(46만TEU)을 기준으로 할 때 오는 2020년까지 12개 정도의 선석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부산항 신규 컨테이너 부두 건설계획은 신항 남'컨'의 2-4부두 3선석, 신항 서'컨'의 2-5부두 3선석, 2-6부두 2선석, 서'컨' 북측 피더부두 2선석 등 10개 선석에 불과하다. 그나마 현재 서'컨' 5개 부두는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2020년까지 제대로 완공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컨테이너 부두 적정 하역능력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됐다는 여론에 따라 현재 해양수산부는 적정 하역능력 재산정 용역을 추진 중인데, 유력하게 예상되는 적정 하역능력 재산정 결과(60만TEU)로 가정하더라도 2020년까지 9개 선석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설사 2020년까지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이미 신항의 물동량 처리능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인 2025년에는 부산항의 물동량이 2천854만TEU에 이를 것으로 보여 지금보다 16~22개 선석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항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한 셈이다. 이 때문에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돼 추진 중인 신항의 남'컨'과 서'컨' 등 10개 선석 외에 아직 개발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3단계 부두의 개발 방침을 정부가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항만물류 전문가는 "컨테이너 부두가 기획돼 설계와 시공을 거쳐 완공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못해도 10년이다. 부산항 신항의 신규 컨테이너 부두 추진이 그만큼 시급한 것인데, 조속한 정책 결정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일보 2월 5일자

4 '선박펀드' 본격 출항, 조선해운업 '활력'

조선해운업이 장기침체로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들이 선박펀드를 잇따라 조성해 조선해운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내 해운사의 고효율 선박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조성한 1조 원 규모의 '에코십(Eco ship·연료효율을 높인 친환경 선박) 프로젝트 펀드'가 본격적인 후순위채권 투자에 나섰다. 수출입은행은 3월 4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현대상선, 하이자산운용, KSF선박금융 등과 펀드투자계약을 맺었다.

이 투자계약은 현대상선과 대한해운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선박 건조 비용의 15%)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각각 2천700만 달러, 1천600만 달러의 에코십 건조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현대상선은 에코십 펀드로 마련된 자금을 한진중공업에 발주한 벌크선 4척의 건조에 사용할 예정이다. 현대상선측은 이들 선박으로 향후 총 9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해운도 벌크선 2척을 확보해 포스코와 현대글로벌비스의 철광석과 석탄을 수송하는 11년간의 장기 용선계약에 투입하기로 했다.

부산은행은 선박금융 취급부서를 기존 본부 부서인 투자금융부와 함께 선박금융 특화점포인 중앙동지점으로 확대하고, 올해 1천억 원 규모로 '해양·선박 특별펀드'를 조성해 운용에 들어갔다. 부산은행의 해양·선박 특별펀드는 부산·울산·경남지역 해운업체와 국내 조선소에 선박건조를 맡기는 해외 해운사를 주로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은행은 또 한국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과도 선박금융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간접대출 형식으로 선박금융을 실시하고 있다.

이같이 에코십 펀드 등 선박펀드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첫 발을 디딘 만큼 유동성 악화로 제때 선박 확충에 나설 수 없는 국내 해운사와 일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사의 경영 애로를 동시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에코십 펀드 등 선박펀드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외국계 선사의 선박 발주에 우선시될 수도 있다"면서 "국내 조선해운업계의 불황 탈출을 위해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국내 선사들의 지원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일보 3월 8일자

5 국토부, 철도 물류부문 독립 운영 책임사업부제로 개편... 6개 물류사업단 89개 물류역으로 재편

정부가 철도물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코레일 물류부문을 독립적인 책임사업부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 물류부문을 책임사업부제로 개편, 출범시킨다고 3월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2014년 12월 철도물류 부문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여객과 화물의 운영을 분리한다는 원칙하에 물류 자회사 분리의 전단계로 과도기적 책임사업부제 도입을 결정하 바 있다.

코레일 물류사업부는 지역본부에서 분리된 6개 물류사업단과 산하 89개 물류역으로 재편되며 총 1,367 명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또, 여객과 공동으로 활용 중인 시설·설비·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사업부문 간 내부거래제를 도입해 원가구조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사업부문별 명확한 경영진단이 가능한 구조를 구축했다. 아울러 책임경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물류본부장은 공모를 통해 선임하고, 직원도 별도의 직렬로 채용하는 등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분리구조가 도입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철도물류 책임사업부제 출범과 함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도 보완할 계획이다. 장거리 대량수송 장점을 살리기 위해 화물역은 30개 이내 거점역 중심으로 재편하고, 30~40량 단위의 대량 운송이 가능하도록 시설 개량을 추진한다. 철도물류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4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또 현재 여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로배분, 선로사용료 기준 등을 재정비해 여객·화물 간 공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로그 3월 31일자

6 2월 부산항 '컨' 환적 물동량 151만5230TEU...역대 최대 작년 동기대비 24.5%나 증가, 대형선사 中 물동량 견인 덕

부산항의 2월 컨테이너 환적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4.5%나 증가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의 2월 총 물동량은 151만5230TEU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3만3000TEU보다 13.7%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환적화물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4% 증가한 83만 2989TEU였고, 수출입화물은 전년 동기 대비 2.0% 늘어난 68만 2241TEU였다. 이 같은 환적화물 물동량은 2월 물동량 가운데 가장 많으며 전체 물동량의 55.3%를 차지했다.

국가별 환적화물은 중국(26만7864TEU), 미국(11만4835TEU), 일본(11만1140TEU), 유럽(4만3334TEU)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미국, 유럽 화물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4%, 3.7%, 20.8% 각각 증가한 데 비해 일본, 러시아 화물은 4%, 6.2% 각각 줄었다.

이 같은 환적화물 증가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2월 항만물동량' 보도자료를 내고 "머스크, MSC 등 대형 원양선사의 중국 물동량이 상승세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머스크와 MSC는 컨테이너 처리 세계 1, 2위의 덴마크, 스위스 선사로 '2M'이라는 해운동맹(얼라이언스)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세에도 부산항을 제치고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세계 6위에서 5위로 올라선 중국 닝보-저우산항은 지난해 동기 대비 21.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홍콩을 따돌리고 세계 4위로 도약했다. 이에 따라 부산항(세계 6위)과 닝보항(세계 4위)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국제신문 3월 31일자

7 화물운송시장 불공정 위·수탁 계약 관행 개선되나 국토부,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정 고시

화물운송시장에서 불공정한 위·수탁 계약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경제혁신의 하나로 화물운송시장 내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위·수탁 계약서 고시(안)'을 마련, 오는 4월 22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안)은 상대적 약자인 화물차주가 운송회사와 위·수탁계약 체결 시,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고시에 따르면,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다른 계약은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단, 별도 특약은 가능하다. 또 2년 이상 계약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기간 만료 시 자동 연장된다. 아울러, 계약의 체결, 갱신, 해지, 대폐차 동의 등을 조건으로 하는 부당한 금전지급 요구가 금지되며, 위·수탁 차주가 원하는 보험사와 보험종류를 운송사업자가 거절할 수 없다. 이 외에도 계약 해지 시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감차처분, 정기검사 2회 이상 기피 등 분명한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는 운송사업자의 사업 일부 양도 또는 위·수탁차주의 계약상 지위 양도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표준 위·수탁 계약서가 제정 고시되면 화물운송시장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 간 불공정 계약 해소로 위·수탁차주의 권리가 보호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로그 4월 3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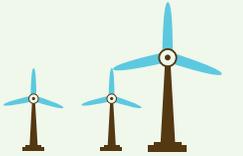
8 해수부 "극동지역 항만 진출 희망기업 적극 지원"

북극항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극동 러시아 항만 개발에 참여하고,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북극정책 시행계획'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해 체결한 '한·러 항만 현대화 및 개발에 관한 MOU'에 따라 극동지역 주요 항만에 대한 현대화 및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극동항만 진출 희망기업을 적극 유치·지원키로 했다.

또 과학 분야에서는 연구시추 기능을 보유한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내 추진한다.

해수부는 북극이사회 회원국과의 협력강화 차원에서 올해부터 노르웨이, 러시아와 북극권 양자협의를 정례화하며, 아이슬란드 주최 북극썰물에서 '한국의 밤' 행사를 개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북극해 상업운항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야말(Yamal) 프로젝트'와 연계한 플랜트 기자재 수송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내년에는 북극해와 러시아 내륙수로를 통해 카자흐스탄 등에 정유 플랜트 구조물 등 초중량 화물을 수송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이밖에 2017년 발효하는 국제해사기구의 '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기준(Polar Code)'에 대비해 연내 '극지운항선박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북극항로 안전항해를 위해 2018년까지 자체적으로 항해안전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부산일보 4월 7일자



이제는 미래를 위한 부산항의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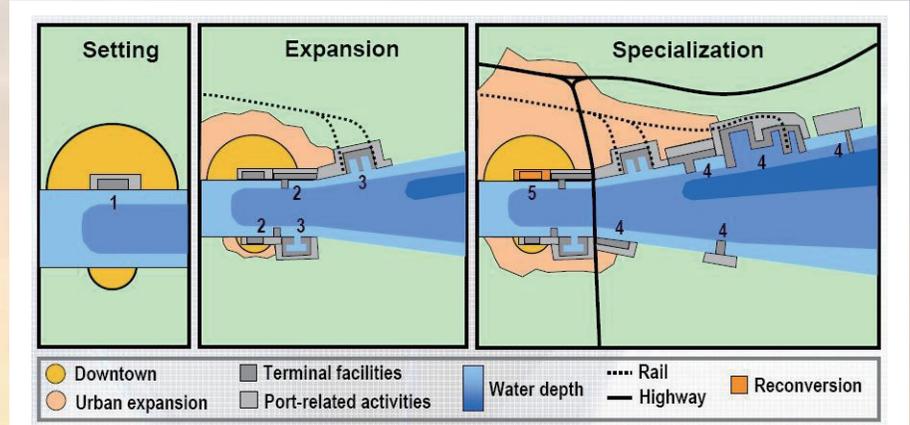
항만은 해상운송, 화물배송기지, 내륙운송을 연계하는 교차점의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 및 지역 간의 물자 교류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종합물류기능을 수행하는 중심기지로 발전해왔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항만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최고의 항만인 부산항은 많은 시련과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현재 세계 5위의 컨테이너항만으로 성장하였다.

어렵게 키워온 세계 5위의 위상도 2014년을 마지막으로 중국 닝보-저우산항에 자리를 내 주고 말았다. 앞으로 부산항은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위상을 유지하느냐 하락하느냐의 기로에 서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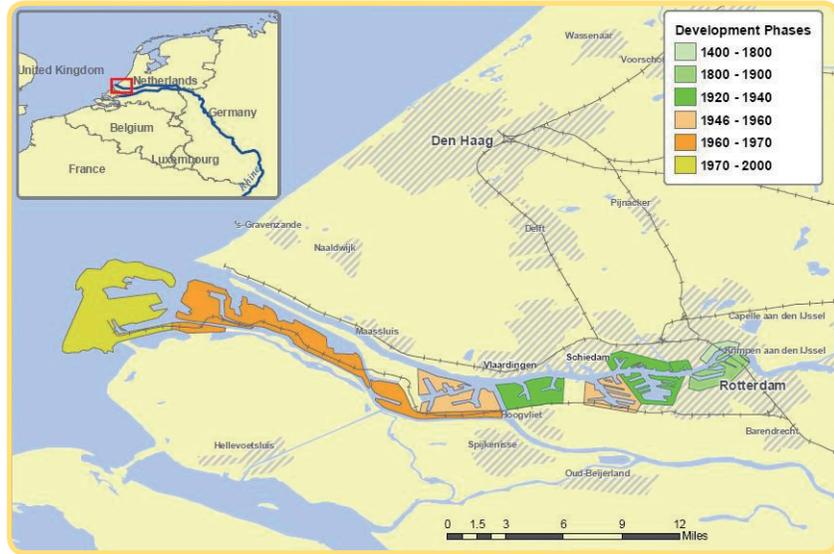
김율성 조교수
한국해양대학교 물류시스템공학과

일반적으로 부산과 같은 항만도시들은 항만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었다가 도시가능 확대에 따라 기존 항만시설들은 도시 외곽으로 이전되고, 원도심의 항만은 재개발되어 새로운 기능을 창출하는 해양도시로 진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부산항 북항은 중앙 정부 주도로 항만 개발이 진행되어 오면서 부산시가 관할하는 주변 물류시설과 도시기능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구조적인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화물처리기능 약화와 기존 항만시설 노후화, 항만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주변 도심환경과 도시성장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부산항 북항과 신항의 운명이 지금에 와서 뒤바뀌고 있는 것은 도시성장에서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자료 : 노홍승(2007), 국제물류포럼
도시와 항만의 진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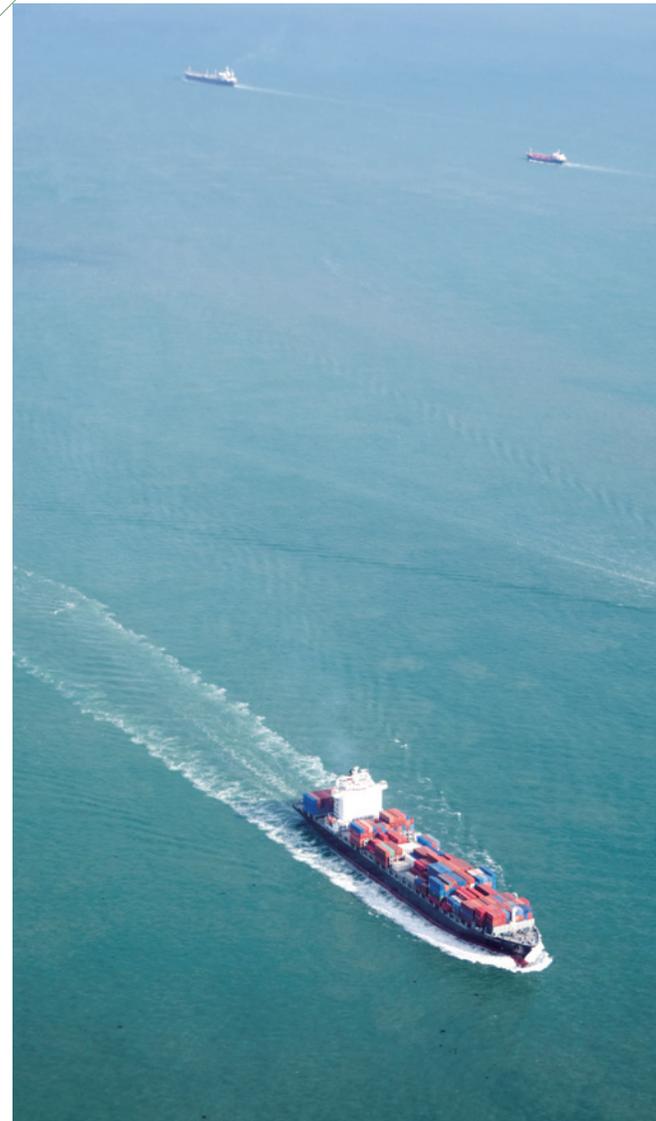


로테르담항의 진화과정

한편, 부산항 북항은 2005년까지만 해도 부산항의 전체 물동량을 처리하였으나 2006년 신항 개장 후에 낮은 성장세를 보이다가 2008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게 되었다. 2012년 이전에 대한통운 신선대부두를 이용해 오던 GA(Grand Alliance)와 동 업체의 피더선사들이 신항 PNC 부두로 기항지를 옮기면서 신항의 처리물량 비중이 60%를 넘기고 있다. 이를 계기로 이제는 부산항 북항 시대에서 신항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고 보면 된다. 이 같은 신항의 가파른 성장세로 2014년 부산항 물동량은 1,868만TEU 처리하였고, 그 중에서 신항이 1,196만TEU 이상을 처리했다. 이는 부산항 전체 물동량의 64%를 신항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마저도 2018년 2-4단계, 2020년 서컨테이너 부두가 개장될 경우 80%의 부산항 물량이 신항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부산항 북항의 선박 입출항 척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선박대형화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5만 톤 이상의 대형선들이 가장 크게 감소하고 있다. 반면, 신항은 모든 톤급별 선박에서 최근 5년간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5만 톤급 이상의 선박입출항은 100% 이상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5만 톤급 이상의 대형선박은 구주노선과 미주노선을 운항하는 글로벌 선사들의 주력선박으로 가장 많은 물량을 싣고 나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지표이다. 더불어 10만톤급 이상의 초대형선박도 신항기항 비중이 70%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주요 글로벌 선사들의 선박 기항지를 북항에서 신항으로 옮김에 따라 앞서 전망 하였던 신항 물량 집중현상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부산항 북항과 신항의 뒤바뀐 운명은 단순히 북항에서 신항으로 대형선박과 물량만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부산항의 컨테이너 수출입 업무를 대행해주는 국제운송주선업체들과 보세창고 및 운송업체, 세관, 보험 등을 담당하는 업체들도 동시에 이동하게 된다. 이렇듯 북항에서 신항으로 물량이 빠르게 이전하면서 북항의 부두시설 유희화(遊休化)와 중구 중앙동 일원의 항만시설 공동화(空洞化)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항 북항의 유희화와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 신항 및 북항간의 기능정립에서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항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자성대 부두와 우암부두를 포함한 북항 전체의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북항의 역할은 신항이 대신하게 되며, 북항은 단순한 항만 기능에서 벗어나 북항재개발 사업과 연계된 신해양산업의 공간으로 재편될 것이다. 따라서 부산항은 신항과 북항, 남항의 특화발전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갖춘 종합항만으로써 밝은 미래를 견줄 수 있다.

우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북항재개발 사업은 중앙부두, 1~4 부두일대를 해양친수공간과 국제비즈니스 및 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이다. 현재 부산항 1, 2, 3부두 해역 매립공사와 3부두와 4부두 사이의 국제여객터미널 부지 공사 등 기반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향후 북항재개발 사업이 준공되면 140년 가까이 시민과 단절되었던 북항이 워터프론트 친수공간인 동시에 21세기형 관광과 비즈니스의 메카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항은 화물처리 중심 기능에서 신해양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편되어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게 될 것이다.



부산항 신항은 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 사업(국제산업물류도시, 에코델타시티 조성, 부산연구개발특구 등)과 다양한 항만시설을 확충(LNG 선박연료기지, 선박 및 해양플랜트 수리기지 등) 및 연계를 통해 물류기능이 더욱 강화되어, 북극해 항로와 자원개발 가시화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챙길 수 있는 물류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신항은 다양한 항만시설의 확충과 연계를 통해 고부가가치 화물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진화하여 부산항의 미래를 이끌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산항 남항은 수산시장 개발사업과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조성 사업, 수산식품산업 진흥원 설립 등을 통해 수산식품의 국가간 자원화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수산식품의 허브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남항은 수산물 거래와 유통, 가공 등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실현되는 원스톱 공간으로 개발되어 원도심의 기능회복과 수산업의 미래가 될 것이다.

부산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준비해야 할 시간이 왔다. 부산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그랜드 디자인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부산항의 지속가능한 미래

신항 중심 물류허브 구축



- 1. 세계 제2환적항만 지원시설 확충**
- LNG 선박연료 기지, 선박 및 해양플랜트 수리기지, 한일해협권 One-Stop 물류기지
- 2. 글로벌 Tri-Port 물류기지 구축**
-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 중단철도 물류기지
- 3. 물류전용 인프라 및 터미널 조성**
- 물류전용 인프라와 첨단복합물류터미널

북항 중심 신해양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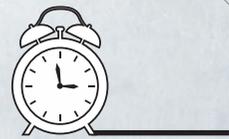


- 1. 해양경제특구 지정 및 제도 마련**
- 2. 신해양산업 육성**
- 해양플랜트 공급기지 조성, 기업 유치 등
- 3. 해양관광 및 비즈니스**
- 4. 해양과학 R&D 육성**

남항 중심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 1. 자갈치시장 글로벌 수산관광명소**
- 2.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 3. 국립수산식품산업진흥원 설립**



3시간

무거운 밤공기 속을 기차는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기차는 사람들에게 풍경을 감상할 여유를 주기 싫은 양, 환자를 태운 구급차와 같이 매섭게 바람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제가 볼 수 있는 거라고는 창문에 비친 제 모습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딱히 시선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인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수업시간에 올리는 여동생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외마디로 동생에게 다시 물었지만, 동생은 흐느낄 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 올라갈게.”

전화를 끊는 순간, 무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숙사 방에 들어가 옷을 챙겨야 할지, 한시가 급한데 바로 달려가야 할지, 지금 기차는 있는지, 버스가 빠를지…….

기차는 제가 내릴 역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생각보다 멍했지만, 생각만큼 슬프거나 울음이 터지진 않았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것처럼 가는 내내 아버지와의 추억이, 기억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떠오른 것 보다 기억해냈습니다. 정말 마지막 같았거든요.

곧게 뻗은 도로 저 끝에 병원건물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건물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생각에, 저 건물에서 어머니가 울고 계실 생각에, 저는 앞으로 닥칠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인데, 병원에 도착한 내 모습은 너무나 쉽게 머리에 그려졌습니다. 5분 뒤의 제 모습이 변히 보였습니다.

그렇게 택시가 도착하지 말기를 바라는 아이러니한 심정으로 병원 입구에서 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구석에서 삼촌이 담배를 물고 계셨습니다.

“어, 왔냐. 들어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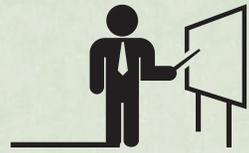
저를 알아보신 삼촌은 절반이나 남은 콩초를 버리고선 절뚝이는 발을 힘겹게 끌고 앞장 서셨습니다. 제 주제에, ‘형을 잃은 기분은 어떨까…?’라고 짧게 삼촌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누군가의 울음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에 도착했을 땐 사진 속 아버지의 환한 웃음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전병훈

(주)한진 해운종합통제센터



현대상선 선택Plus 교육을 다녀와서



최재훈 대리
현대상선(주) 물류사업팀

요즘 현대상선 내부적으로 중요한 화두는 변화와 혁신 그리고 소통이다.

해운시황 침체의 장기화에 따라 비단 현대상선뿐만 아니라 많은 선사들이 어려운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변화와 혁신의 추진 과정에는 일정 부분의 불협화음과 진통이 따르게 마련이다 보니 이를 원만하게 극복해 나가기 위한 소통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배경으로 지난해에는 국내에 근무하는 직원 전체가 순차적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참여한 Change Café 교육을 실시하였다. Change Café가 변화와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교육이었다면, 이번 선택 Plus 교육은 변화와 혁신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선택과 소통을 각 구성원들에게 체험 형식으로 내재화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인 셈이다.

이번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느낀 점은 교육도 진화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교육은 강사의 일방적인 지식전달식 교육으로 몰입도가 떨어지는 게 보통인데, 이번 교육은 수강자 전체를 몇 개의 조로 나누어 구성원 모두에게 일정한 역할을 배분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탕에 깔고 있었다.

1박 2일 일정으로 양평 블룸비스타(현대그룹 연수원)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주된 내용이 '내가 만약 CEO가 된다면'이었다. 대통령 선거처럼 우리 회사의 CEO를 투표로 통해 선출하는 것인데, 각 조별로



대표를 뽑고, 조원들은 보좌관, 대변인, 정책담당, 홍보담당 등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처음에는 뭔가 시키는 것이 많은 교육이라 피곤하겠구나 생각했던 나도 어느새 보좌관의 역할을 맡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자신이 소속된 조의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공약을 설정하고, TV토론회와 정책설명회를 준비와 함께 홍보 영상과 CM송까지 1박 2일 동안 소화하기는 다소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구성원들의 시너지가 발휘되니 주어진 시간 내에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교육이 시작되기 전 강사가 물었다. "만약 당신이 CEO가 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언뜻 쉬울 것 같은 질문인데 선택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같은 질문을 받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주저주저 했다. 내 경우는 그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아마도 CEO란 자리가 너무 멀게 느껴져서 그 자리의 무게감이나 책임감에 대해서 나오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수년째 제자리인 월급이나 복지부분의 혜택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식의 자기편의적인 생각은 많이 해봤지만, CEO로서 당연한 위기에서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던 셈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작은 울림이 어쩌면 이번 교육에서 얻은 가장 값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첫 번째 줄 좌측에서 두 번째 슈퍼맨 Badge가 최재훈 대리



CEO 선출 막간에 진행된 Leader와 Follower 체험도 인상 적이었다. 2명씩 짝을 이뤄 Follower는 눈을 감고 Leader가 이끄는 데로 움직이는 것이 규칙이다. 서로 대화도 할 수 없고 오로지 사전에 약속한 몸동작을 이용한 신호에 의해서만 소통해야 하는데, 강의실 밖으로 나가 계단, 풀숲, 돌밭길 등 다양한 코스를 이동하는 동안 Follower는 전적으로 Leader를 믿고 따라가야 했다. Leader는 불안해하는 Follower를 적절한 신호나 배려를 통해 믿음을 주면서 이끌어 나가야 했다. 도중에는 Leader와 Follower가 서로 역할을 바꾸어 진행하게 된다. 몇 번 인가 움짤움짤 눈을 뜨고 싶은 불안감이 생겼으나 끝까지 Leader를 믿고 따라갔을 때 묘한 성취감이 있었다. 비록 서로 대화는 없었지만 체험이 끝난 후에는 짝을 이룬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이 생겨났다. 또한 각각의 위치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박 2일의 짧은 교육이었지만 지금까지 받았던 그 어떤 교육보다 얻는 것이 많았던 느낌이 든다. 비록 우리조의 대표가 CEO로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자신과 타인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소통의 방법, 조직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구성원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할 여지를 남겨준 뜻 깊은 체험이었다.



봄이면 봄마다 버스커 버스커 〈벚꽃엔딩〉

또 이 노래가 대한민국을 한 바탕 휩쓸고 지나갔다. 마치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듯 봄이면 봄마다 찾아오는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엔딩〉을 사람들은 '벚꽃좀비'라고도 부른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오는 것 마냥 여름, 가을, 겨울 죽어지내던 노래가 봄만 되면 되살아나니 좀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좀비의 이미지와 이 노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노래 제목처럼 하얗고 분홍빛으로 물들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벚꽃이 아니고서야 〈벚꽃엔딩〉과 어울리지는 심상은 없다.

2011년 케이블 음악전문방송 Mnet의 〈슈퍼스타K 시즌3〉에서 '울랄라세션'과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이다 2위에 머물렀던 밴드 버스커 버스커는 사실상 1위와 다름없이 대한민국 가요계에 입성한다. 오랜 거리문화 활동으로 작사, 작곡, 연주 실력을 두루 갖춘 장범준을 비롯한 멤버들(김형태, 브래드)이었기에 뮤지션으로서는 잔뼈가 굵어있었다. 그러니 〈슈퍼스타K 시즌3〉를 통해 대중들에게 이름과 실력을 알린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크나 큰 기회였다.

사실 버스커 버스커는 20명으로 구성된 천안의 거리공연 문화 단체였다. 이들은 여건에 따라 2인조에서 6인조 이상의 멤버로 활동했다. 그러다 2011년 4월, 장범준이 Mnet 〈슈퍼스타K 시즌3〉에 버스커 버스커를 알리고 싶어서 재미삼아 참가신청을 했고, 그 당시 오디션 지역 예선당시 멤버들 중 장범준, 브래드, 김형태가 시간이 되어 3명으로 참가했는데 이것이 엄청난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슈퍼스타K 시즌3〉 이후 이들의 노래가 하나하나 발표되고 정규앨범이 발매가 되자 대중들은 기다렸다는 듯 그들의 음악에 열광했다. 특히 2012년 3월말에 발매된 정규앨범에 수록된 〈벚꽃엔딩〉은 벚꽃이 개화하는 시기와 맞물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라디오에서나 TV에서나 이 노래와 뮤직비디오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흘러나오곤 했으니 순식간에 국민가요가 된 셈이다. 시기를 잘 맞췄다고는 하지만 노래자체가 워낙 귀에 쏙쏙 들어오고 봄 벚꽃 시즌의 분위기를 잘 녹여냈기에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



〈벚꽃엔딩〉이 수록된 첫 정규앨범에는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도 수록되어 있는데 잔잔하면서도 호소력 짙은 멜로디와 장범준의 보컬이 잘 어우러져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때마침 2012년에는 여수에서 세계박람회(EXPO)가 열려 노래의 인기는 배가 되었다. 이 외에도 〈꽃송이가〉, 〈첫사랑〉 등의 곡이 잇따라 인기를 얻으며 버스커 버스커는 성공적인 데뷔를 맞본다.

버스커 버스커는 두 번째 정규앨범을 내고는 사실상 현재 멤버로서의 활동은 중단하게 된다. 보컬 장범준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김형태와 브래드도 각자가 원하는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장범준은 천안으로 내려가 가수 데뷔 이전의 버스커 버스커 활동을 이어나가려 하고 있다.

짧지만 긴 여운을 남긴 이들의 복귀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팬들은 그들이 다시 한 데 뭉쳐 〈벚꽃엔딩〉을 연주하는 모습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내년 벚꽃 시즌에도 어김없이 차트 역주행을 할 〈벚꽃엔딩〉을 기대한다.

CHERRY BLOSSOMS ENDING

벚꽃엔딩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장노래 어떤가요
몰랐던 그대와 단 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그대여 우리 이제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니 모습이 자꾸 겹쳐
오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니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 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장범준 작사, 작곡
장범준, 배영준 편곡



감자칩의 신세계!

허니버터칩 VS 수미칩 허니머스타드

언제부터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그리고 동네슈퍼마켓 가릴 것 없이

과자를 진열해 놓는 매대가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다.

‘허니(Honey)’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 감자칩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생긴 일이다.

거의 대부분 노란색 패키지에 포장된 이 감자칩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진열되기 시작한 건

해태제과에서 생산한 ‘허니버터칩’의 인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한민국 ‘과자계’를 평정한 감자칩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허니버터칩을 영점(?)해 봤는가? 지난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판매가 이뤄진 이 감자칩은 입소문을 타고 급속도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 꿀과 프랑스산 고메버터가 기존의 감자칩의 맛과 어우러져서 새로운 맛을 원하던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켰던 것이다.

이 인기 반응을 언론과 다양한 대중매체에서 이슈화 시키면서 점점 이 감자칩은 매장에 들여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가 품질이 되곤 했다. 일부 몰지각한(과자 좀 많이 산다고 몰지각하다고 하는 건 좀 너무한가?) 고객들의 사재기로 이 감자칩은 품귀 현상까지 보였다. 그래서 가치가 격상된 허니버터칩을 맛보는 건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니 물량을 확보한 사람들이 웹사이트에서 웃돈을 얹어 거래를 하기도 했으며 또 이 거래에서 왕왕 사기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과자 하나로 인해 발생한 촌극은 반년이 지나면서 점차 사그라졌지만, 그래도 아직 일부 마트에서는 잘 팔리지 않는 다른 과자와 묶어서 판매하는 ‘끼워팔기’ 등의 웃지못 할 해프닝이 발생하고 있다.

대항마를 찾아라!

허니버터칩의 인기로 경쟁사들은 이와 비슷한 맛의 감자칩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는데 그중 단연 눈에 띈 건 농심의 수미칩 허니머스타드였다. 기존 수미칩 라인업에 허니머스타드 맛을 더한 것이라 인지도가 높았고 맛에서도 허니버터칩과는 차별화된 특색이 있어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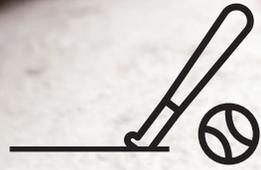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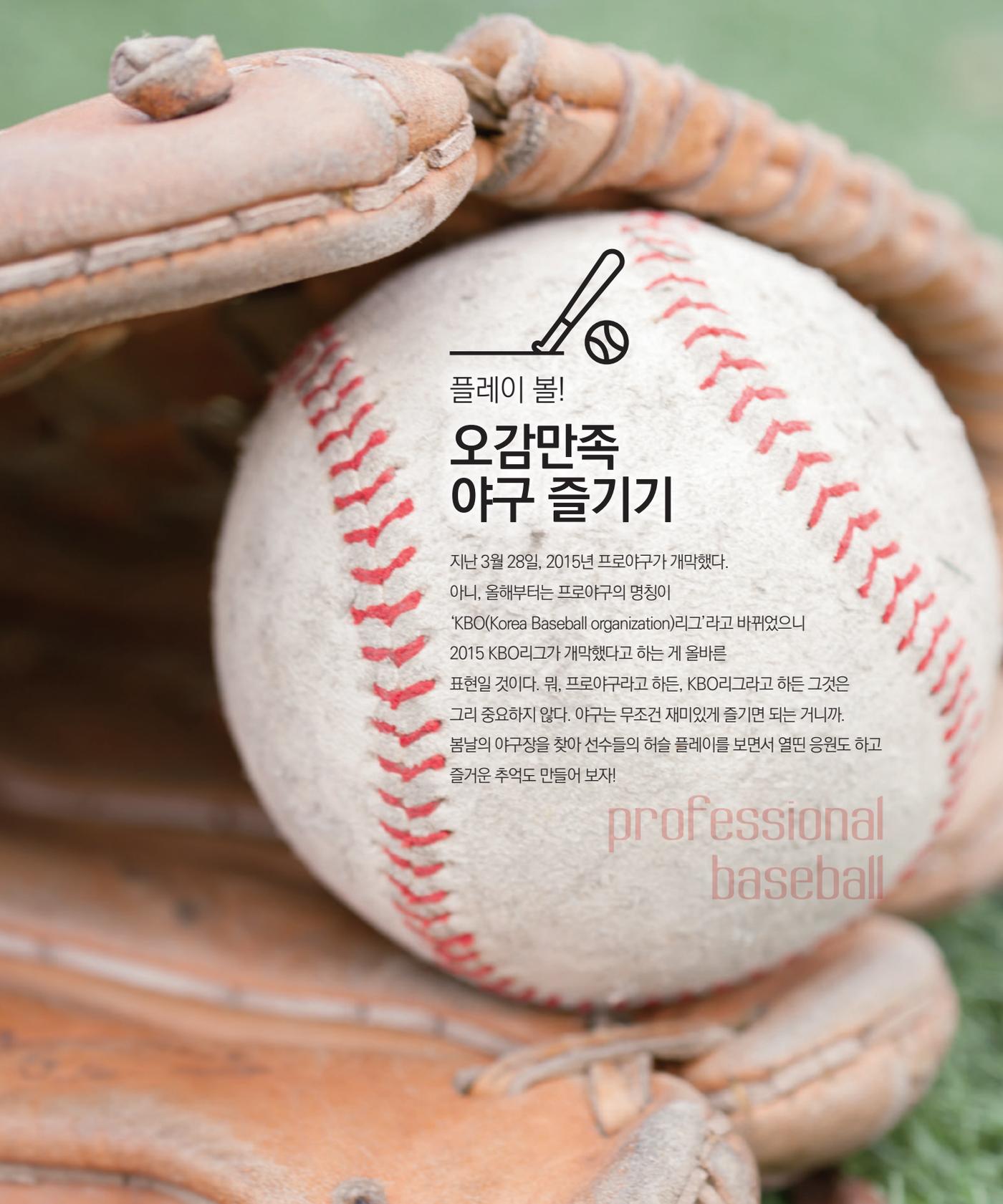
허니버터칩이 달콤하고 부드러운 감자칩의 맛을 구현했다면, 수미칩 허니머스타드는 그 맛에 은은한 겨자향을 더해 먹는 이로 하여금 알싸한 맛을 느낄 수 있게 했다. 그래서 품귀현상을 보이는 허니버터칩의 공백기에 꾸준한 판매효과를 올렸다. 지금도 일부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종종 품질상태로 비워진 수미칩 허니머스타드의 매대를 볼 수 있다.

비록 허니버터칩의 사례와 같은 촌극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난리법석을 떨지 않아도 언제나 먹을 수 있는 새로운 맛의 감자칩’이라는 제품의 이미지를 형성해 허니버터칩과 차별성을 지닐 수 있었다. 최근에는 인기배우 유승호가 모델로 등장하는 광고도 제작되어 허니버터칩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

반짝하는 유행보다 스테디셀러를

허니버터칩과 수미칩 허니머스타드의 라이벌 구도는 사실 허니버터칩 대 수미칩 허니머스타드를 비롯한 각종 ‘허니류’ 감자칩의 구도로 봐야 한 쪽이 일방적이지 않을 것이다. 허니버터칩이 다른 제과회사들을 자극해서 일어난 이러한 경쟁구도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더 다양하게 만족시켰지만, 계속해서 아류에 아류가 생산되다 보니 새로운 맛이던 ‘허니류’ 감자칩의 맛이 더 이상 신선하게 느껴지지 않게 되었다.

예전 ‘꼬꼬면’의 인기로 ‘나가사키 우동’ 등 하얀 국물의 매운맛 라면이 급속도로 높은 매출실적을 올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언제 그랬냐는 듯 인기가 시들해진 것만 봐도 하나의 제품이 반짝하는 유행에 편승하면 그 수명이 길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를 거울삼아 여러 제과회사들도 이제 다시 다른 차별화된 맛으로 소비자의 사랑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



플레이 볼!

오감만족 야구 즐기기

지난 3월 28일, 2015년 프로야구가 개막했다.

아니, 올해부터는 프로야구의 명칭이

'KBO(Korea Baseball organization)리그'라고 바뀌었으니

2015 KBO리그가 개막했다고 하는 게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 뭐, 프로야구라고 하든, KBO리그라고 하든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야구는 무조건 재미있게 즐기면 되는 거니까.

봄날의 야구장을 찾아 선수들의 허슬 플레이를 보면서 열띤 응원도 하고

즐거운 추억도 만들어 보자!

professional
baseball

야구장의 봄 향기

봄 주말 낮 경기를 보기 위해 야구장을 찾으면 햇빛을 받아 조금씩 초록빛이 도는 잔디의 풋풋한 향기가 바람에 실려 올 때가 있다. 또 여기저기 핀 꽃들의 은은한 향기와 경기장 곳곳을 스쳐지나가는 여인들의 싱그러움(?) 향기도 후각을 자극한다. 저녁 경기는 아직 무릎담요가 필요할 만큼 날씨가 조금 쌀쌀하지만 햇살 따스한 주말에 야구장을 찾아 봄 향기를 만끽하러!

언제나 볼거리 가득

야구장에 가면 눈에 띄는 복장으로 응원석을 메운 골수팬들, 좋아하는 선수의 유니폼으로 커플룩을 완성한 다정한 연인들, 경기 시작 전 그라운드에 나와 몸을 풀고 있는 선수들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많다. 사인회 같은 행사가 있는 날이면 좋아하는 선수를 바로 코앞에서 볼 수 있어 더욱 흥미롭다. 경기가 시작되면 치어리더들의 화려한 몸짓이 응원석의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선수들의 근성 넘치는 경기모습도 눈을 못 떼게 한다.

응원가 Listen & Repeat

응원가는 어렵지 않다. 관중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기존의 익숙한 음악에 개사한 가사를 붙여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 롯데디자인츠의 유니폼을 입은 외국인 선수 짐 아두치의 응원가를 예로 들자면, 1996년 KBS에서 인기리에 반영됐던 만화 영화 <두치와 부꾸>의 주제가 도입부 가사, '한치 두치 세치 네치 부꾸빠 부꾸빵'을 개사해서, '롯데 롯데 롯데 롯데 아두치 아두치, 안타 안타 안타 안타 아두치 아두치'로 만들었다. 가사나 멜로디를 잘 몰라도 야구장에 가서 듣고 따라 부르면 금세 익숙해지는 것이 야구 응원가이니 야구장을 찾아 목이 터져라 응원가도 불러보자.



치맥은 언제나 좋다

치맥(치킨+맥주)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통해 관심을 끌기 훨씬 전부터 우리 곁에 존재했고 여럿이 어울리는 자리에서는 이야기꽃을 피우게 하는 토크박스로, 혼자서 외로운 밤에는 공허함을 달래주는 힐링캠프로 자리매김해 왔다. 야구장에서도 치맥은 좋다. 넓게 트인 경기장을 바라보며 시원하게 맥주를 들이켜고 바삭하고 고소한 치킨을 한입 뜯으면 어쩐지 '야구는 거들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올해부터는 야구장 주류반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맥주는 야구장 안에서 판매하는 컵맥주만 음용이 가능하다.)

야구공 좀 잡아보자

야구장을 찾는 모미 중 하나가 홈런볼을 잡는 행운을 맛보기 위함도 있다. 한 경기에서 홈런이 나오는 빈도가 그리 많지 않기에 홈런 볼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은 낮다. 하지만 파울볼은 홈런볼보다 많이 나오므로 1루나 3루 쪽 좌석에 앉아 혹은 익사이팅 존(Exciting zone)에 앉아 거침없이 날아오는 파울볼 잡기에 도전해보자. 물론 볼을 잡기 위해서는 야구글러브를 가져가는 건 필수다. 참! 아직 야구장에서 파울볼을 잡으면 무조건, '아주라! 아주라!'를 들어야 하므로 공을 잡은 손맛만 보고 지근거리에서 무섭게 다가오는 아이들에게 건네주자. 그래야 욕을 안 먹는다.

올해 KBO리그는 10개 구단이 720경기(팀당 144경기)를 펼치며 야구팬들을 만나게 된다. 작년보다 경기 수가 늘어난 만큼 겨울동안 야구 개막을 기다린 팬들에게는 더욱 흥미로운 시즌이 될 것이다. 집에서 TV로 보든 야구장을 찾아서 보든 응원하는 팀의 한 경기 한 경기를 재미있게 즐기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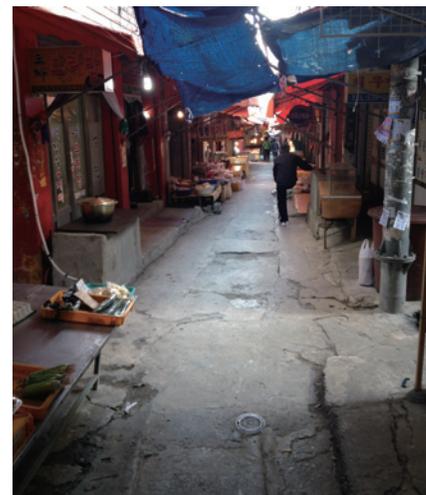



 지그재그 구석구석
 사람 사는 맛이 난다
**부산 서동
 미로(美路)시장**



시장의 이미지는 '시골벽적'으로 간추려진다. 고래고래 소리치며 손님을 끌어 모으는 상인, 생떼를 쓰며 물건 값을 조금이라도 더 깎으려는 손님, 이거 사 달라 저거 사 달라 조르는 아이들의 칭얼거림, 가게마다 켜놓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북적이는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등 시골벽적해이 시장이 시장답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시장을 찾는 사람이 줄었고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줄었다. 대형마트의 난립과 홈쇼핑, 온라인쇼핑 등으로 장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 도심의 상설시장은 예전과 같은 시골벽적함이 줄었다. 그래서 정부, 지자체 단위의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이 펼쳐졌고 그로 인해 전국의 여러 전통시장은 변하기 시작했다. 현대화 사업을 통해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탈바꿈 하면서 재래시장의 느낌을 지우려 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 금정구 서동에 위치한 서동 미로시장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 때는 서민들의 애환이 서려있었고 또 산업발전의 역군들로 북적였으며 지금은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강제 이주민들의 애환 서린 터전

부산 금정구 서동은 1960년대 말 중구 영주동의 철거민들이 강제 이주를 당하면서 개발되기 시작했다. 철거민들은 산비탈을 깎아 만든 터를 1가구마다 규격화된 면적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가구와 다른 가구사이에 간격이 거의 없이 뽁뽁하게 집을 지어 올렸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지어진 집들이 무수히 많이 남아있다.

당시의 시대상 자체가 경제적으로 또 정치사회적으로 힘든 시기였지만 철거민에게는 더욱 생활이 어려웠을 시절이었다. 피눈물 섞인 삶을 어떻게든 버티고 살기 위해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도 가축을 키우기도 생활용품을 만들기도 하며 지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되었고 일자리를 찾아 서동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날마다 늘어났다. 이 영향으로 서동의 시장들은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비롯해 밥도 먹고 술도 한 잔 걸치려는 노동자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다양한 분야의 금사공단 노동자들이 시장을 찾아 생활의 고됨을, 세상의 시름을 풀어 놓았고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금세 친구가 되기도 했다. 그렇게 서동의 시장들은 타지에서 일자리를 찾아 들어온 노동자들의 쉼터로 안성맞춤이었다.

그러나 9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금사공단의 공장들이 공장부지의 가격과 인건비가 쉰 중국 등지로 이주하게 되면서 금사공단은 쇠퇴기로 접어든다. 더불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서동을 떠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서동의 시장들도 타격을 입게 된다.

지속가능한 문화관광형 시장

시대의 흐름은 옛것을 낡고 개선해야할 것으로 치부했다. 전통시장들도 그 항목에 들어갔고 그래서 현대화라는 손질을 겪게 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시장 저마다의 특색을 살리기 위한 스토리텔링도 발굴하면서 이제 전통시장은 문화의 요소가 가미된 시장으로 거듭나게 된다.

서동의 시장들도 이 흐름에 동참해 서동시장, 서동골목시장, 서동향토 시장을 통합해 서동 미로시장으로 공통의 명칭을 만들었다. 좁고 긴 골목으로 이뤄진 시장의 길이 미로(迷路)와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 길들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길(迷路)이라 하여, 중의적인

그 시장은 서동시장, 서동전통시장, 서동향토시장 등 3개의 시장으로 발전하게 된다.

맨몸으로 시련을 이겨내며 살아온 사람들로 인해 건물도 도로도 편의시설도 갖춰지면서 서동의 각 시장들은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서동 옆에 위치한 금사동에 공업 단지가 들어서면서 시장에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강제 이주민들의 애환 서린 터전

7-80년대 금사공단이 개발되고 발전하면서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금사동과 더불어 인근에 위치한 서동에서 살기 시작한다. 대한민국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화학, 고무, 신발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공장으로 이뤄진 금사공단은 주야 2교대 혹은 3교대로 쉴 틈 없이 가동



의미에서 미로시장이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서동 미로시장만이 가진 특색을 살려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 하기에 이른다. 골목골목 이어진 길들을 천천히 걸으면 미로를 탐험하는 느낌이 들어 이곳을 처음 찾은 사람들을 흥미롭게 한다. 그리고 시장 안에 위치한 서동예술창작공간은 다양한 문화행사와 학습을 진행해 지역주민과 함께 문화로 소통하고 있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서의 미로시장을 더욱 가치 있게 하고 있다.

인생이 때로는 미로 같을 때가 있다.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다보면 다른 길로 빠지거나 막다른 길에 닿게 된다. 어쩌면 서동 미로시장은 우리네 인생을 지그재그 이어진 골목길로 함축시켜 놓은 듯하다. 그 안에서 은근 하게 풍기는 사람냄새가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우리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는 것 같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시장의 모습도 바뀌어 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현대식으로 구조를 바꾸고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설과 제도를 마련하며, 또 여러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개최하면서 손님을 유치하는 현재 전통시장의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장만의 특색을 잃어가는 것 같아 조금 안타깝다. 무질서 속의 질서를 가지고 있었던 시장이 이제는 규격화 되고 있는 것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과거에서 해답을 찾을 수는 없다. 각 시장만의 특색을 살린 여러 아이템과 스토리텔링이 개발되고 발굴되어 우리 전통 시장이 먼 미래에도 활력 있는 모습으로 사람냄새를 물씬 풍겼으면 한다.

사진 및 자료출처 서동미로시장 홈페이지, 서동예술창작공간 블로그

계란만두 한 접시 하실래예?



서동 미로시장에 들렀다면 반드시 먹어봐야 할 음식! 바로, 계란만두!!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물에 묽게 푼 밀가루를 동그랗게 펴친 후 그 위에 하얀색 당면과 계란을 올려서 익히면 끝! 간단한 제조법이지만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이 맛이 나지 않는다. 계란만두는 원래 양념간장을 올려 먹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지만 언제부터가 떡볶이 소스를 얹어서 먹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의 계란만두 제조법은 정통방식이 아니다. 원조 계란만두는 지금처럼 흐물흐물하지 않았고 빈대떡이나 파전 같은 느낌이었다. 얇은 밀가루 베이스 위에 투명한 당면을 올리고 당근과 파를 곁들인 후 마지막에 계란 한 알을 푼! 깨뜨려 올린 뒤 뒤집어서 익힌 후 접시에 내놓는 것이 원조의 방식이다.



서동시장 찾아가기!



- 부산 시내버스 29번, 42번, 99번, 148번, 155번, 179번, 183번, 189번 등의 버스노선이 서동미로시장을 경유한다.
-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온천정역에서 내려 4번 출구로 나와 금정구6번 마을버스를 타거나 온천정역 시내버스정류장에서 179번, 183번, 189번 버스를 탄다.

올해의 봄도 벌써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벚꽃이 거리 곳곳을 수놓았던 게
불과 며칠 전 같은데
이제는 장미의 계절이 다가온다.



그 봄, 벚꽃이 분다 벚꽃카페 일루소

봄의 전령이라 할 수 있는 꽃들이 많지만 웅장하게 흐드러진 벚꽃을 압도할 수 있는 꽃은 드문 것 같다. 그래서 길지 않은 시간동안 피어 있다가 비와 바람에 흩날려 꽃잎들이 떨어지면 못내 아쉬운 듯하다.



2013년 SBS에서 방영된 <그 겨울, 바람이 분다>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회를 본 사람이라면 조인성(오수 역)과 송혜교(오영 역)가 함께 있던 엔딩 장소가 무척 궁금했을 것이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어 이른 봄의 느낌을 색감으로 확 와 닿게 했던 바로 그곳은 경남 김해 대청동에 위치한 카페 일루소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송혜교 카페나 조인성 카페로 유명한 곳인데 사실 배우들의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벚꽃카페라고 불러도 될 만큼 봄이면 벚꽃이 장관을

이룬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누구나 송혜교와 조인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한다.

또 특유의 장관 덕분에 광고 촬영지로도 유명한데, 배우 이나영이 커피광고를 찍은 곳도 이곳이다. 그래서 일루소에는 이곳을 찾은 배우들의 사진과 스틸 컷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또한 카페를 찾은 사람들에게 재미를 더하고 있다.

카페 일루소는 한적하면서도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연과도 잘 어울리고 도심과도 잘 통한다. 그래서 굳이 봄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듯하다. 더불어 이곳에서는 직접 커피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도 해 커피와 로스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기도 있다.

벚꽃이 피는 시기처럼 한창 바쁠 때에는 좀 복잡거릴 수도 있지만 한가한 시간에 찾다면 산과 나무 그리고 맑은 공기와 함께 다양한 커피와 차 그리고 디저트 음식들을



즐길 수 있다. 특히 뒷마루 같은 2층의 테라스에서나 인조잔디가 깔린 1층의 테라스 테이블에서 자연을 벗 삼아 앉아 천천히 그 시간을 즐긴다면 어쩐지 일상에서 풀지 못한 감정의 찌꺼기들을 비워낼 수 있을 것만 같다.

카페 일루소는 부산 경남 근교의 관광객은 봄나들이 장소로도 또 혼자서 나만의 여유를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곳으로도 제격이니 주말에 계획이 없다면 한 번쯤 이곳을 찾아보는 계획을 잡아 봐도 좋을 것이다.

4계절 중 봄은 정말 금세 지나고 마는 것 같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얼핏얼핏 기웃거리다 아주 잠깐 꽃을 피우고는 여름에게 밀려나는 기분이랄까. 그러니 봄을 즐기려면 부지런해야 한다. 지금이야 꽃잎이 다 떨어져 버려서 카페 일루소의 벚꽃 장관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계절은 돌고 도는 법! 아직 봄에 이곳을 다녀가지 못했다면 내년 봄을 기약하자. 벚꽃으로 유명한 장소야 전국 곳곳에 많이 있는데 뭘 그리 유난이냐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드라마에서의 남녀 주인공의 감성을 고스란히 느껴볼 수 있는 벚꽃 명소는 흔치 않다. 그러니, 상상으로나마 잠깐 조인성, 송혜교로 빙의(?)해 보고 싶다면 카페 일루소를 기억해두자.



카페 일루소

•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계곡길 195-108 Open : AM10:30 ~ PM10:30 (연중무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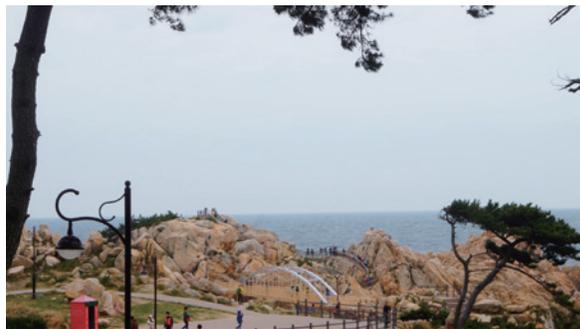




글쓴이 권은정 여행자가 걷는 건 싫지만 여행은 좋아하는 글쟁이

누구와 함께 걸어도 좋은 길, 울산 대왕암공원을 걷다.

대왕암공원은 1956년부터 2004년 2월까지 울기공원으로 불렸다. 울기공원은 소풍지로 인기가 많았는데 울산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이곳으로 소풍을 와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다시 찾은 대왕암공원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단 하나 바뀌지 않은 건,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로 북적인다는 것이다. 아마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찾아오고 싶게 만드는 힘을 가진 곳인 듯하다.



1. 대왕암공원입구
2. 공존상수상
3. 송림
4. 구등탑,신등탑
5. 신등탑
6. 구등탑



대왕암공원안내도

대왕암공원은 거대한 용이 문 앞을 지키고 있다. 그 속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끈게 서 있는 소나무의 호위를 받으며, 대왕암공원으로 들어섰다. 소나무의 보살핌 안에 벚꽃나무와 백일홍,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각자의 자리를 잡고 자라고 있다. 아직 피어나지 않은 식물도 있었고 살짝 꽃망울을 터트린 꽃, 그리고 꽃잎을 떨구는 백일홍, 벚꽃도 있다. 철마다 산책길을 수놓는 식물들을 보는 것도 이 길을 걷는 즐거움 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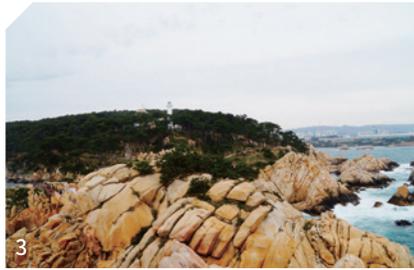
대왕암공원 입구에서 대왕암까지는 2가지 코스 길이 있다. 바닷바람을 쐬며 가고 싶은 이는 A코스, '나는 무조건 직진!'이라는 마음을 가진 이는 B코스를 택하면 된다. 대왕암을 기점으로 돌아올 때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으니, 다양한 것을 보고 싶은 이는 가는 길과 오는 길을 선택해서 이동하면 된다.

바람이 몹시 부는 날, 나는 '송림'의 보호 속에 꽃, 나무 구경을 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는 '편안한 산책길'을 걸었다. 송림 속에서 귀를 기울이면, 소나무 사이를 이리저리 빠져나와 나의 귀를 행복하게 하는 파도소리를 들을 수 있다. 단, 귀를 잘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으니, 가끔은 조용히 일행 사이를 빠져나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추천한다.



산책로를 걷다보면, 새하얀 등탑 두 개가 줄지어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뒤에 높이 올라 있는 것이 '신등탑'이고 앞에 아담하게 앉아 있는 것이 '구등탑'이다. 신등탑은 주변의 해송들이 자라남에 따라 바다에서 구등탑이 보이지 않자, 1987년에 새로이 건립한 것이다.

1. 소리를 들어보세요
2. 고래턱뼈
3. 대왕암에서 바라본 신등탑



등탑이 가까워질 때쯤, 발걸음을 붙드는 것이 있었다. 울기항로표지관리소로 들어가기 전 입구 아래쪽에 세워져 있는 '울산동구 소리9경, 울기등대 무산소리와 대왕암공원 몽돌 물 흐르는 소리'라는 글귀가 적혀있는 표지판이다. 중간이 동그랗게 뽕 뿜어 있는 이것과 소리가 무슨 관계인지 몰라 이곳저곳을 보던 중 구멍에 얼굴을 넣어보았다. 예상치 못한 노랫소리에 머리를 쭉 빼고 눈은 휘둥그레졌다. 이게 무언가 싶어 멍하니 있다가, 깜짝 놀란 스스로의 모습에 헛웃음이 났다. 만약 이곳을 지나는 이가 있다면, 조심히 손을 넣어보고 머리를 넣어 보길 권하고 싶다.

놀란 가슴을 진정하며 울기항로표지관리소 입구에 들어서면 나란히 서 있던 두 등탑 중 구등탑을 자세히 볼 수 있다. 구등탑은 고종 광무 10년 3월 경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1972년 기존 등탑을 증축하여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한다. 두 등탑 다 멋지게 서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늘씬해 보이는 신등탑 보다 양증맞은 구등탑이 더 정이 갔다.

신등탑을 지나 후문으로 빠져나오면 고래턱뼈로 만들어진 아치 모양의 문을 만난다. 안내문을 보지 않았다면 처음 보는 고래턱뼈를 그저 시멘트로 만든 조각이라 착각했을 듯했다. 무심히 발걸음을 옮기던 사람들도 "이게 고래턱뼈래!" 하며 멈춰서 만져보고 놀라워했다. 고래턱뼈 한 개의 무게가 250kg, 높이는 5m이라고 하니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고래였을 것 같다.

Tip

- A코스로 이동하면 응굴, 남근비루 등을 보면서 대왕암에 닿을 수 있다.

• 대왕암 방문 시 유의점

대왕암에서 '마릴린 먼로'가 되고 싶지 않으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짧고 나풀거리는 치마를 입는 건 자제하자.

• 교통편

• 울산시내에서 방어진행 버스(1401번, 133번, 401번 등)를 타고 32번(방어진성당 경유)으로 환승하여 울기공원 정류장에서 하차.



고래턱뼈를 지나 경사로를 내려오면 대왕암이 보인다. 붉은빛을 띠는 바위들이 바람과 파도에 맞서며 저마다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붉은빛의 바위와 푸른 바다, 하얀 파도가 만들어 내는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강력한 바람 때문에 다리를 지날 때는 조금 무서운 마음이 들었지만 여름에 온다면 참 시원할 것 같아 기회가 된다면 여름의 대왕암도 방문해 보고 싶었다.

대왕암을 돌아 나오는 길, 여전히 이곳은 많은 이들이 찾아오고 있었다. 애완동물과 함께, 가족, 연인과 함께 한 사람들이 환한 미소로 찾는 이곳. 문무왕의 왕비는 알았을까? 그녀가 잠들어 있는 이곳이, 후대의 사람들이 찾아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곳이 될지... 그래도 고요하다 못해 적극적인 것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명당자리를 본인이 선택한 것을 부듯해하지 않을까?

시간이 된다면 가족, 친구들과 부담 없이 걸으며 즐거운 대화도 나누고 시원한 바닷바람도 쐬 수 있는, 대왕암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이곳으로 바람

퀴즈도 풀고 의견도 나누며 <양산ICD소식지>와 독자들이 소통하는 유익한 공간!

봄호 퀴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부산항을 제치고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세계 6위에서 5위로 그리고 최근에는 홍콩마저 따돌리고 세계 4위로 올라선 중국의 'OO-OOO항'에서, 'OO-OOO'에 들어갈 지명은 무엇일까요?

제안/제언을 접수합니다

양산ICD의 발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에 대한 격려, 부족한 점에 대한 아쉬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등 양산ICD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독자의 의견

<양산ICD소식지>의 성장을 위한 의견이나 소식지에 실렸으면 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2015 April Vol. 41

 (주)양산 ICD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제방로 225
T. 055-372-0932~4, 6 F. 055-372-0937

양산 ICD(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는 내륙항만으로서의 역할과 화물의 통관, 보관, 주선, 내륙운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영남권 최대의 컨테이너화물 복합물류기지입니다. 부산항 북항 및 신항과 연계한 수출입 물류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장기 보관이 필요한 재유동컨테이너의 보관, LCL화물 처리 뿐만 아니라 3자물류, 제조·판매 시설의 운영 등 고객들에게 다양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